

돌의 영혼과 나누는 불가사의한 대화

미켈란젤로의 <성 마태오>

노성두 | 미술평론가

미켈란젤로의 <성 마태오>는 원래 열두 제자 가운데 첫 작품이었다. 그는 1503년 피렌체에서 계약서를 쓰고 향후 12년 동안 매년 한 점씩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카라라 대리석을 떼서 배에 싣고 오니 일년이 후딱 지났다. 망치를 집어 들고 끌을 놀리려는데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급한 전갈이 왔다. 하던 일 걸어치우고 당장 로마로 오라는 명령이었다. 교황 사절이 몰고 온 마차에 다 간단한 짐꾸러미 하나를 싣고 올라탄 때가 1505년 3월. 피렌체에는 미처 끝내지 못한 마태오 조각 한 점만 덩그러니 남았다.

장부 쓰던 손으로 복음서를 쓴 마태오

<마태오>가 미완성으로 남게 된 건 순전히 미술사의 행운이다.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그의 불가사의한 작업방식을 냉수사발 들여다보듯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미완성 작품은 여럿 있지만, 죄다 일부러 손을 놓아버린 것들이어서 어디로부터 끌을 댄는지, 어떤 사상이 작업과정에 녹아들었는지는 감감했는데, 요행히 타의적 강제에 의한 비의도적 미완성 작품 덕택에 오백년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됐다. 어떻게 작업했길래?

마태오는 <성서>를 들고 있다. 예수의 삶을 기록한 책이다. 그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세상에 남겨둘 책이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책을 들고 있지만, 돈장부를 정리하던 손으로 복음서를 쓰게 된 마태오에게는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이제 세상과 등을 돌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참이다. 그런데! 등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 뒤 돌아본 마태오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멈춘다. 멈칫대던 걸음을 돌려서 계단을 도로 내려온다. 끌과 망치로는 새기지 못했지만, 그의 귀에는 예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렸을 것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머리를 젓혀서 뒤 돌아보는 마태오의 표정은 고통스럽기 짝이 없다. 그의 몸이 비틀리고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소리치기 시작한다. 늙고 고단한 삶의 마지막에 닥쳐온 새로운 선택의 시점이다. 미켈란젤로가 마태오의 삶에서 골랐던 시점이기도 하다.

위로 오르던 마태오의 왼발이 가장 빨리 순응했다. 이미 걸음을 돌려서 계단을 내려오려고 한다. 그 때문에 왼쪽 무릎이 크게 돌출했다. 제일 낮은 건 뒷몸이다. 상체는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왔고 왼쪽이 뒤로 물러섰다. 여전히 계단을 오르는 자세가 남아 있다.

돌 속에 파묻힌 인체를 찾아서

미술사학자들은 대리석 <마태오>를 관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개 돌덩어리의 여섯 면 위에도 스케치를 하고 크게 덩어리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마련인데, 스케치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또 전후 좌우로 돌아가면서 만들어낼 형상의 전체 윤곽을 다듬어 나가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측면과 뒤쪽은 손이 닿지 않았다. 뒤쪽은 아예 카라라에서 떼어냈을 때의 원상 상태 그대로였다. 게다가 대리석 속에 파묻힌 마태오의 자세와 사지는 더욱 수수께끼 투성이였다.

왼쪽 무릎은 마무리가 끝나서 매끄럽게 윤기가 나는데, 치켜든 턱 끝과 어깨에는 아직 끌이 파 들어간 이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왼팔과 오른쪽 다리였다. 등쪽은 아직 대리석 속에 파묻혀서 그 형태조차 짐작하기 어려웠다. 한 사람의 형상을 조각하면서 어떤 부분은 마무리를 끝냈고, 다른 부분은 전혀 손 대지 않았더니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었다. 더군다나 부조가 아닌 환조를 한쪽에서 깎아들어가다니!

미켈란젤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돌을 한 겹씩 걷어내는 방식으로 조각하지 못했다. 특히 <마태오>처럼 뒤틀린 인체의 경우 접어서 돌린 왼쪽 허벅지가 바깥으로 꺾은 허리와 서로 만나



1504~1505년, 피렌체 아카데미아.

는 부분의 각도와 자세가 한 치라도 어긋나면 곤란하다. 감감한 돌 속에 파묻힌 인체를 구슬처럼 들여다보는 눈이 없고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다.

미켈란젤로는 돌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고 물질의 감옥에서 형상을 해방시킨다고 말했다. 그의 끝에는 우주를 들여다보는 맑은 눈이 있어서 어떤 돌덩어리라도 환하게 비춰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맑은 귀가 있어서 바위의 저주에 유배된 형상들이 영혼의 자유를 부르짖는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던 바사리는 스승의 삶을 전기로 남기면서 이렇게 기록했다.

“마치 육조에서 물을 뺄 때 몸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듯 진행됐다.”●